새로 나온 책

▲십우도(이기영 역해)=중국의 고승 곽암이 지은 십우도를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인 저자가 십우도 열 장면의 내용과 의미를 풀이했다. 특히 곽암의 십우도에 원효사상의 저류가 흐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국불교연구원, 3천원〉

▲법구경의 세계(이원섭 지음)=불교학자이며 시인인 저자가 불교의 초기경전인 법구경을 팔리어 원본을 기준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덧붙였다. 알기쉬운 설명과 비유를 들어 해설하고 있어 불교 전반에 걸친 이해와 불교사상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운주사, 7천원〉

▲백수산고(白水散稿, 정완영 지음)=한국시조시인협회장을 지낸 저자가 그동안 펴낸 '채춘보' '蓮과 바람' 등의 작품집 서문과 문우들에게 보낸 서간문을 한데 모았다. 한편의 작품을 쓸 때마다 '시람의 가슴마다에 등불 하나씩을 달아준다는 심정'이라고 고백하듯이 아름다운 글을 읽는 즐거움을 흠뻑 느끼게 해준다. 〈토방, 1만원〉

▲어느 마음에 점을 찍을꼬?(김청균 지음)=달마 이래 동양의 禪을 활짝 꽃피웠던 선사들과 제자들의 문답을 150가지 이야기로 정리했다.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 무궁무진한 진리의 세계를 엿볼 수 있다. 본문삽화는 조상진씨가 그렸다. 〈동쪽나라, 5천원〉

비교종교학 서적 '관심 고조'

유사·상이점 분석…불교 정체성 확인 계기
종교간 이해도모…강원 교과목 개설 예정

불교 기독교 유대교 등의 종교는 서로 어떤 유사점과 상이점을 가졌을까. 또 불교 밖에서 보는 불교는 어떤 종교일까.

다종교사회 속에서 이같은 물음에 답하는 비교종교학에 대한 관심은 필수적 요소로 다가왔다. 강원에서도 내년부터 비교종교학을 정식교과목으로 채택한다.

그러나 이 분야의 많은 책들이 기독교의 신학적 입장에서 서술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때 비교종교학이 기독교신학의 한 분류로 오해되기도 했다. 비교적 객관적 입장에서 여러 종교를 비교연구한 책으로는 〈종교란 무엇인가〉 〈세계의 종교〉 등 10여종을 꼽을 수 있다.

〈종교란 무엇인가〉((니시타니 게이치, 대원정사)는 동서양사상의 비교검토를 통해 동서문화의 융합을 형성하고자 불교와 기독교사상에 대한 비교검토와 논증을 하고 있다. 불교의 입장에서 종교를 바라보는 새로운 종교철학의 지평을 연 책으로 평가된다.

〈무신론과 유신론〉(히사마쯔 신이찌 외, 대원정사)에서는 불교 기독교 양대종교의 비교보다는 대화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나와 너(불교와 기독교)의 관계가 진정 나이면서 너이려면 〈금강경〉의 '즉비(卽非)의 논리'와 '무상의 자기'에 입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교학·종교심리학〉(키시모토 히데오·마쓰모토 시게루, 불교시대사)에서는 기존의 기독교중심적 종교관을 거부한 가운데 종교학의 개념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는 달리 서양의 입장에서 불교-기독교의 비교를 통해 기독교신학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책은 〈불교의 공과 하느님〉(한스 발덴펠스, 대원정사)이다. 저자는 "깨달음을 연 불타의 미소와 십자가형에 처해졌던 예수의 시련에 가득찬 얼굴은 서로 만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물음으로 결말을 맺고 있다.

〈세계의 종교〉(유다 유타카, 불교시대사)는 불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세계 5대종교를 구원관에 입각하여 비교검토한 비교종교학 개론서로 읽힌다. 저자는 '민인구원론'의 입장에서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의 구원관을 비판한다.

〈욕망론〉(허우성 외, 경서원) 〈신비사상〉(윌터 스테이스, 동쪽나라)은 특정주제를 중심으로 종교의 비교를 시도했다. 이 두책은 동서양종교에 나타나는 욕망과 신비체험을 분석 정리하여 각 종교의 핵심을 드러내고, 나아가 종교간에 '서로 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색케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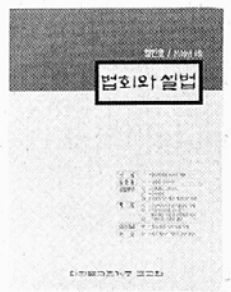
〈불교의 서구적 모색〉(유다 유타카, 민족사) 〈불교사상과 서양철학〉(E.콘즈, 민족사) 〈서양에서 본 불교〉(미네시마 히데오, 불교시대사)는 칸트 헤겔 니체 프로이드 토인비 등 서구사상가들의 불교이해를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불교의 객관적 모습을 그려내는 시도로 참고할만 하다. 〈불교사상과 서양철학〉에서는 부록으로 70여편의 불교와 서양철학의 비교연구 문헌목록을 실어 관심있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비교종교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도법스님(선우도량 대표선우)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불교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든 호교론적인 것이든 타종교의 사상과 정신을 이해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라며 "불교의 주체적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타종교와 화해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방향의 비교종교학 관련서적이 출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출판 단신

'법회와 설법' 창간호 사찰에 무료 배포



일선포교사들을 위한 전문 법회지침서〈법회와 설법〉이 창간됐다.

〈법회와 설법〉 창간호에는 법회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안 3종과, 자료로서 포교원장 정락스님의 '설법을 잘하려면'이라는 논문을 게재했으며, 지난 한달동안 일간지 및 월간지의 기사를 종교 가정 사회 문화과학 국제 등 분야별로 요약정리해 실었다. 또 6월의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와 불교의 관계를 조망한 논문을 실어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법회와 설법〉은 조계종소속 사찰에 무료로 배포되며, 개인구독 희망자에 대해서는 실제 법회지도여부를 확인해 제공한다.

'공해없는 세상' 5호 29일 출판기념법회

공해추방운동불교인모임(회장 원주)에서는 계간〈공해없는 세상〉 5호를 발행했다.

이번호에는 월운 현근 현각스님과 전재성 유정길 김형중법사의 환경법문과 '불교종립학교의 환경교육'을 특집으로 실었다. 공추불은 지난 29일 오후6시 서울호텔에서 출판기념법회 및 신임 간부상견례를 열었다.

불서 종합목록 배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대표 임희근)는 '95불서종합목록을 발행해 배포하고 있다.

3천7백여종의 불서를 불교입문 경전 등으로 분류하고 전체목록과 출판사별 색인란을 두어 저자 출판사 도서명 가운데 하나만 알아도 원하는 불서를 찾아볼 수 있도록 꾸몄다.

전국 대형서점과 불교서점 등에 보급되며, 운주사로 반송용 우표를 동봉(일반 530원, 등기 1,330원)하면 받아볼 수 있다. 720-9372, 서울 종로구 청진동 6 대명빌딩 1층.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1	삶에서 깨어나기	틱 낫 한	장경각
2	부처님 말씀	성 열	법 등
3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4	나를 보게 하소서	현 장	민족사
5	차크라바르틴	성 낙 주	살 림
6	인도사회와 신불교운동	야마자끼	한 길 사
7	젊은 불자들을 위한 수행론	법 륜	중앙불교교육원
8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일 타	효 림
9	술몽쇄언	김 대 현	을유문화사
10	알기쉬운 불교	편 성 부	불교방송

구입문의:(02)737-0695

화제의 책

한국불교철학의 어제와 오늘 정병조 지음

신행 풍토 비판 새로운 불교철학 모색

불교는 한국 정신문화의 주류를 형성해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불교가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고 자문해 볼 때 자괴감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불교철학의 어제와 오늘〉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며, 불교철학의 새로운 해석을 모색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참인간의 정립을 목표로 하는 인간학이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관점에서 불교와 실존철학의 대비를 통해 불교철학을 현대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또 불교가 21세기의 문제에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현대사상과의 조우를 통한 현대적 해석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원정사, 1만원〉

불교의식의 바른 이해 한정섭 지음

'석문의범' 자료로 예경·불공등 의식 해설

불교의식은 불교인들의 일체행위와 규범의 총칭이며, 수행과 중생교화의 주요한 방편이다.

〈불교의식의 바른 이해〉는 예경 송주 불공 장례 재공 접안 방생 수계 공양 이운 좌선 법회차례 사경 축원 종고의식 등의 불교의식을 〈석문의범〉을 기본자료로 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불교의식은 스님들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신도들까지도 알고 믿자는 열성으로 대중화되고 있다. 지난해 불교방송 대담프로 '무명을 밝히고'의 원고를 당사의 현장감을 그대로 살려 책으로 정리했다.

부록으로 〈석문의범〉 원문을 실었다. 〈삼원사, 9천원〉

명사추천 불서 100선

서산대사의 '선가귀감'

거룩한 빛 어둡지 않아
만고에 빛나네
이 門 안에 들어왔거든
알음알이 두지 마라

'거룩한 빛 어둡지 않음'은 앞에 든 '매우 밝고 신령함'의 맺음이요, '만고에 빛남'은 앞에 든 '본디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음'의 맺음이요, '알음알이 두지 마라'는 앞에 든 '이름할 수도 없고 모양지을 수도 없는'것에 대하여 어설프게 아는 척하지 말라는 것을 맺음이다. '門'이라 함은 '범부와 성인이 함께 드나든다'는 뜻이니 중국 스님 신회(神會)선사의 이른바 '知' 한 글자가 온갖 묘한 이치의 문이라고 한 것과 같다.

'이름도 모양도 없다'는 데서 시작하여 '알음알이 두지 말라(莫存知解)'는 것으로 글을 맺으니 이 한편에 얽힌 넝쿨을 한마디 말로써 부수어 버렸다.

위 詩 한편과 해설 일부는 휴정(休靜) 큰스님 리산·금강산·묘향산 등의 여러 절에서 수도생활과 교육을 하면서 당시 불교계의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고 후진들이 제대로 불법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묘향산에 머물렀던 여러해 동안 50여권의 경론과 어록 등에서 공부하는 데 긴요한 간절한 글귀들을 가려뽑아 제자들에게 차근차근 가르친 것을 뒤에 책으로 엮어 1564년 (명종 19)에 완성한 1권의 책이 바

김 경 희
〈지식산업사 대표〉

경론·어록서 보배되는 글 모아
후학들에게 '깨우침의 길' 안내

로 이 선가귀감이다.

휴정은 선승이기에 교보다는 선을 중시했으나 결코 교를 홀시하지는 않았다.

제5절에서 '禪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敎는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입장을 취하여 禪敎一元임을 강조한다. 이는 그가 고려 대각국자 의천의 敎觀兼修나 보조국사 지눌의 定慧雙修의 전통을 이은 것임을 말한다.

그리고 제11절에서 '단숨에 깨치고(頓悟) 점차 닦는(漸修) 두가지는 공부의 시작과 끝'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최근 우리 불교계의 때늦은 논쟁을 생각케 한다.

불교의 입문서로 엮은 이 책은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불교계에서 조차 150여회의 간행을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지구촌 전법이야기

◇일본군 유해 4천여구를 일본으로 이송시킨 공로로 기시 수상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고 있는 행원스님.

모든 이들의 안락을 위하여 <2>

숭산 행원스님 ②

'삶 이끄는 가르침 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식층을 모아 禪의 세계를 펼쳐 보이니…

이미 그들은 그날의 법회에서 얻고자 했던 그 무엇을 얻었다는 표정이었다.

모여드는 사람들

다보이주의 셋방법당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도 한국에서 받아간 선물들을 처분해서 월세를 지불해 내며 하루하루의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다. 정작 초라한 것은 협소한 집이 아니었다. 당시의 일본인에게 인식되고 있는 불교 그 자체였다. 교포들도 마찬가지였다. 한마디로 불교를 무당 푸닥거리하는 것쯤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일제시대부터 심어져 온 이런 인식의 벽은 좀체 깨뜨릴 수 없는 현실이었다.

각박스런 현실에서 신도들은 스님들을 찾아가 생활고를 털어 놓고 스님들은 그들에게 운세상담을 하거나 제사를 지내줄 뿐이었다.

"바른 삶을 이끌어 주지 못하는 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행원 스님은 일본에 선불교를 제대로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추스렸다. 스님이 이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 동기는 차라리 하나의 해프닝에 가까웠다. 어느날 셋방법당으로 일본인이 찾아왔다.

불교 제대로 포교

"스님, 저의 집에 오셔서 불공을 좀…."

그 일본인 여인은 주위의 무당들이 보낸 듯 했다. 그녀에게는 불공을 청하는 사람의 간절함이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합시다. 앞장 서시지요."

야트막한 그 여인의 집에서 행원스님은 간단한 의식의 불공을 마쳤다. 선승이니 의식에 능란할 수도 없었지만 그 의식이 갖는 의미 자체가 '테스트'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스님, 무슨 불공을 그렇게 하십니까."

"왜요. 맘에 안드십니까."

"거왜 있잖아요, 아… 에…하던서 불공하는 것 말예요. 그런 불공을 해 주십시오."

그랬다. 오사카 근처에 많이 와있는 한국 승려들이 법패를 하며 일인들에게 불공의 의식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행원스님이 "나는 그런것은 모른다"고 하자 가짜로 취급하는 눈빛이 역력했다. 얼마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여인은 짐작대로 무당들의 심부름을 한 것이었고 행원 스님은 '퇴짜'를 맞은 것이다. 퇴짜를 맞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들었으면 무당들이 시키는대로 가가호호 방문하며 의식이나 해주고 불공비의 1할쯤을 얻어 먹는 처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기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었다.

"바른 불교를 심기 위해서는 지식층의 힘이 필요하다. 지식층 인사들을 먼저 포교 해야겠다."

행원스님은 대사관 직원이나 특파원들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기 시작했다. 생각대로 그들은 무엇이 진정한 종교인가를 알았고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인지를 알았다. 무엇보다 선불교의 길을 이해하는 것이 다행스러웠다.

해가 바뀌고 한국을 다녀간 행원스님은 신쥬쿠에 새집을 얻었다. 이 새집에서 다시 법회를 열게 됐고 신도들도 많이 모였다. 그중에도 일본 포교에 많은 도움을 준 신도는 소린고바야시 보살이었다. 나이에 비해 주름이 없는 원만한 얼굴의 그 일본 여인은 범양부인회의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었다. 범양회란 하나의 자선단체로 장관급의 지도층인사 부인들이 만든 단체였다.

엘리트 중심 법회

고바야시 보살도 대학강단에서 은퇴한 엘리트였다. 선을 배우고자 하는 그녀의 열의는 대단했다. 신쥬쿠의 법당에서 행원스님의 법문을 듣고 스님의 포교를 적극 돕기 시작했다. 그날의 법회는 50여명의 신도가 모인 가운데 일상적으로 치러진 정기법회였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법회에 참석한다고 여기 이렇게 모여 앉았습니다. 오늘 법회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그걸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그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알수 없으니까요."

대중 가운데 누구도 뭐라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대중들의 눈빛이 법당안을 긴장시키고 있었다.

"아무도 말씀을 못하시니 이 노릇을 어쩝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냥 돌아 가셔야 할까요. 허허, 그럼 제가 옛날 얘기나 한가지 할테니 듣고 가시지요."

법당안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었다.

감동하는 대중들

"한암의윤(寒巖義尹)선사의 문하에 한 아이가 들어 왔습니다. 하루는 이 아이가 방장실에 들어 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손길이 정갈했습니다. 선사가 기특하여 아이가 청소를 마치고 나자 벽장에서 두개의 만두를 꺼내 주었습니다. 아이는 서슴없이 만두를 받아 입에 넣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선사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맛있냐'고 물었지요. '네' '그래, 네 이름이 뭐냐' '만두(萬斗)라고 합니다' '뭐, 만두가 만두를 어떻게 먹는단 말이냐.' 아이는 두눈을 빛내며 '큰 고기가 작은 고기를 먹는 것이지요'라고 대답했다. 선사는 이 문답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중들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앉아 있는 행원스님의 침묵앞에서 눈을 빛내고 있었다.

이미 그들은 그날의 법회에서 얻고자 했던 그 무엇을 얻었다는 표정이었다.

그중에서 유난히 감격스런 표정을 지었던 고바야시 보살이 며칠 후 행원스님을 다시 찾아왔다.

임연태 기자